

인천 영흥도에 위치한 반려동물 테마파크 '펀츄리'의 전경.
사진제공 | 펀츄리

수도권 최대 반려동물 테마파크 '펀츄리'

반려동물 운동장·놀이터·수영장 등 시설 다양

수도권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7월 인천 영흥도에 문을 열었다.

인천 옹진군 영흥도에 들어선 '펀츄리(Funtury)'는 총 9만9000여m²(3만 평) 규모에 반려동물 운동장, 물 놀이터, 카페, 호프, 산책로, 동반 실내 수영장, 야외 수영장, 스파 등으로 구성된 반려동물 동반 테마파크다.

펀츄리는 재미(Fun)와 고향(Country)을 합친 말이다. 자연에서 세월이 빚은 고풍스러움을 만끽하며 고향집 같은 편안함을 선사하겠다는 뜻에서 지은 이름이다.

10년 전까지 펀츄리는 '오페라하우스'라는 이름의 대규모 펜션이었다. 올해 5월 리뉴얼이 확정되면서 리모델링 및 확장 공사를 거쳐 반려동물 테마파크 펀츄리로 재탄생했다.

펀츄리는 평소 반려동물에 애정이 깊은 직원들이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지낼 수 있는 리조트를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면서 리모델링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펀츄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을 반영해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입실 전 인포메이션 사무실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모든 고객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객실 소독을 진행한다.

펀츄리가 대규모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운영하면서 수도권에서 반려인들의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경상북도 의성군은 반려동물 테마문화공간으로 '펫월드'를 선보였다. 의성군의 펫월드가 전국 지자체 최초라면 펀츄리는 민간 기업이며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펀츄리는 갈 곳이 마땅치 않은 반려인들에게 멋진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란희 객원기자 24news@naver.com

로얄캐닌, 포메라니안 견종별 사료 출시

반려동물 사료 브랜드 로얄캐닌이 포메라니안 견종별 전용 건·습식 사료를 국내에 론칭했다. 로얄캐닌의 견종별 사료는 견종의 습성과 연령, 특징을 고려해 말티즈, 푸들 등 9가지 견종에 대한 영양맞춤 솔루션을 갖추고 있다. 포메라니안은 견종 특성상 두꺼운 이중모로 인해 피부가 건조하고 트러블이 잘 일어나며, 치석과 치태가 쌓이기 쉬운 구강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짧은 장내 소화시간으로 음식물을 발효시키기가 상대적으로 힘들다. 이번에 출시된 포메라니안 전용 습식 사료는 상대적으로 칼로리가 낮고 수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 포만감을 유지해준다. 건식사료와 습식사료를 혼합하면 보다 영양이 풍부하고 건강한 한 끼를 급여할 수 있다. 포메라니안 전용 사료는 2일부터 네이버 쇼핑 브랜드 데이 행사를 통해 사전 출시된다.

강남구, 반려동물 사진·수기 공모전 개최

강남구가 반려동물을 주제로 한 'MEMEWE 반려동물 사진·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정에서 반려동물과 지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사진과 수기를 통해 반려동물과의 추억을 타인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반려동물 종류는 강아지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개인별 최대 3개 작품까지 출품 가능하다.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30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와 응모작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10월 중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선정하며 수상자 6명에게는 총 17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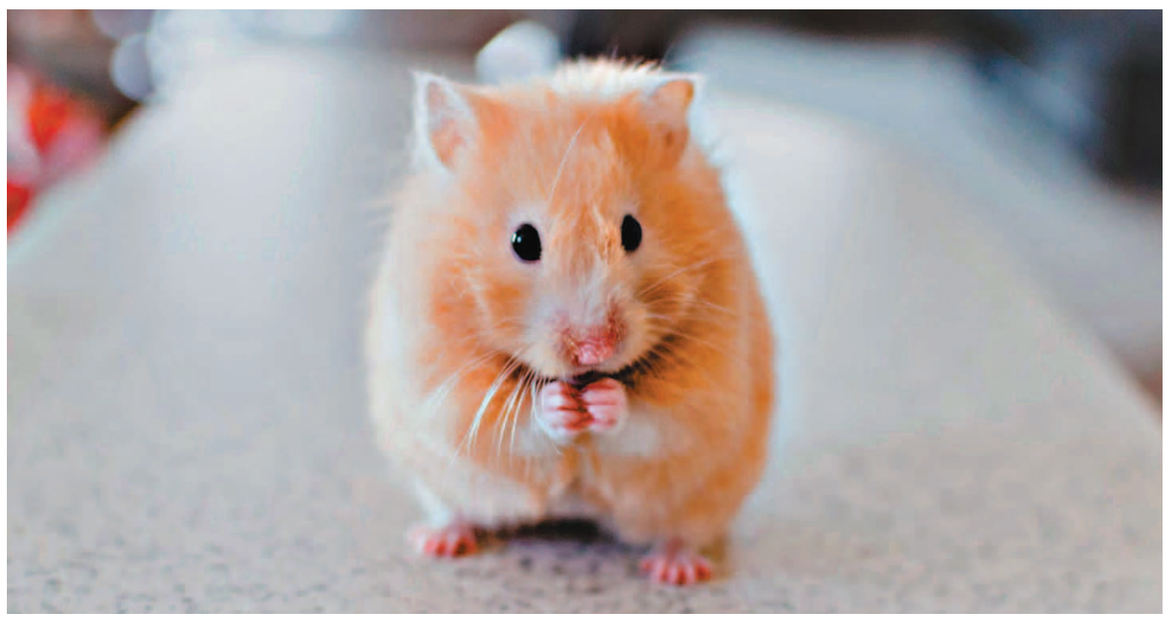
이수진 기자

개·고양이만 키운다고? 이색 반려동물 각광

노홍철은 당나귀 키우고, 지오는 악어와 살고

〈아이돌그룹 엠블랙〉

해외 유명 연예인들 사자에 관심
햄스터·토끼 온순해 인기 1순위
최근엔 라쿤·미니돼지도 상승세



개와 고양이 외에도 여러 반려동물이 반려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악어를 키우는 아이돌그룹 엠블랙의 지오는 "악돌이가 나를 먹이로 착각해 손가락이 잘릴 뻔한 적이 있다"고 얘기했다.
사진제공 | 펫뉴스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반려인 1000만 명 시대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대다수 반려인의 관심사는 개와 고양이다. 하지만 개와 고양이가 아닌, 특이한 동물도 반려동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사실 개와 고양이 외에도 다양한 반려동물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햄스터, 토끼, 기니피그, 고슴도치, 미니돼지, 라쿤, 슈가 글라이더, 다람쥐, 미어캣, 앵무새 등이 있고, 심지어 악어나 당나귀, 사자 그리고 곤충을 키우는 경우도 있다.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일반가구 중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은 51.1%에 달한다. 한국인 2명 중 1명은 아파트에 산다는 이야기다. 악어나 당나귀, 사자 등 특이 동물은 아파트에서 키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주로 연예인들이 이를 키우곤 한다.

방송인 노홍철은 2017년에 미국에서 귀여운 당나귀 한 마리를 입양했다. 그는 당나귀가 서울에서 적응할 수 있을지 7개월이나 고민하다 입양을 결정했다. 당나귀 이름은 '홍키'로 정해졌는데 걸그룹 2NE1의 씨엘이 이름을 지어줬다. 홍키에게 애정을 쏟은 노홍철은 영국의 당나귀 학교 '홀스웰드'를 방문할 정도로 공을 들였다.

가수 엠블랙 지오는 악어를 키웠다. 후천적 알레르기로 털이 안 날리는 반려동물을 찾다가 악어와 동행하게 됐다. 이름을 '악돌이'로 지어줬는데 지오는 한 방송에서 "가끔 (악돌이가) 나를 먹이로 착각한다. 손가락이 잘릴 뻔한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사자는 주로 해외 유명 연예인들이 키운다. 반려의 의미도 있지만, '백수의 왕'인 사자를 통해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려는 마케팅의 일환으로 키우기도 한다. 사자와 같은 맹수는 키우기가 까다로워 전문가의 케어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햄스터나 토끼는 순하고 말썽을 피우지 않아 많은 반려인이 선호하는 동물이다. 햄스터는 주기적으로 먹이를 주고, 케이지 안에 쳇바퀴를 설치해주면 알아서 잘 자란다. 토끼는 순하고 생김새도 귀여워 인기가 많다.

최근에는 라쿤 카페가 생겨나면서 라쿤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 라쿤은 눈에 보이는 걸 만지려는 습성이 있어 공이나 인형을 잘 가지고 논다. 사람과도 스스럼없이 잘 지내 반려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다. 라쿤 카페에 가면 라쿤이 처음 본 사람과 장난을 칠 정도다.

미니돼지도 귀여운 용모로 사랑을 받는다. 돼지는 흔히 둔하고 게으른 동물이라는 오해를 받지만 사실은 명민하고 지능이 높다. 깔끔한 걸 좋아해서 기르기도 편하다.

슈가글라이더는 날다람쥐과의 포유류로 수명은 9년 내외이며, 애교가 많아 사람을 올라타 놀기도 한다. 본래 더운 지방에서 사는 동물이라 키울 때 세심하게 온도 조절을 해주는 것이 필수다.

김호승 객원기자 inewsman@nate.com

전국 유일의 개시장 '대구 칠성 개시장' 문 닫을까

개 식용 시대흐름 맞지 않고
도심에 도살장 위치해 섬뜩
권영진 시장 "폐쇄 검토해야"
민원 많지만 법적 근거 없어

성남 모란과 부산 구포의 개시장이 사라지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대구 칠성의 개시장. 지난 7~8월 복날을 전후로 대구 북구청 민생경제과에 항의가 쏟아졌다. 전국으로부터 개시장을 폐쇄하라는 요구가 빗발친 것이다. 문제는 개시장을 폐쇄하고 싶어도 폐쇄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해 "개 식용이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고 도살장이 도심에 위치해 정서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칠성 개시장 폐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시장의 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개시장 폐쇄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사람들이 개시장 폐쇄를 요구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개를 도축하는 방법이 잔인하다. 대부분의 개 도축이 전류가 흐르는 전살기를 통해 이뤄진다. 심지어 개의 입에 쇠꼬챙이를 넣어 전기도살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대법원은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한 이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전기 도축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개를 사육하는 과정이 지저분하다는 지적도 있다. 수십 마리의 개를 발 디딜 틈도 없는 사육장에 가둬서 키운다. 동물권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생존권도 보장되지 않는다. 그저 먹히기 위해 개들이 사육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시장 폐쇄 요구로 이어졌고, 성남과 부산에서 개시장이 사라지면서 관심은 대구 칠성 개시장으로 집중되는 상황이다.



동물자유연대가 지난 7월 대구시청 앞에서 칠성 개시장 폐업 촉구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 | 동물자유연대

대구 북구청은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개시장 폐쇄나 개 식용 점포 폐업을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김호승 객원기자

코로나19·장마·폭염·태풍…사람도 힘든데 댁의 '댕댕이'는 안녕하십니까?

살인진드기병 등 피부질환 기승
목걸이형 세레스토, 예방에 효과
민감 피부용 전용샴푸도 큰 인기
굽네몰선 영양·보양식 2종 출시



반려견에게 산책은 물처럼 중요하다. 진드기는 여름·가을철에 왕성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산책 시 주의해야 한다. 사진은 진드기 예방 목걸이 '세레스토'를 착용한 반려견.
사진제공 | 세레스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연이은 장마, 태풍, 폭염 등으로 건강관리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국내 1500만 명에 달하는 반려인들 키워드 역시 건강과 위생이다.



◀애경 '휘슬 허브4 약용샴푸'

최근 국내 의료진 집단감염, 사망자 발생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일명 '살인진드기병'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매일 산책을 해야 하는 반려견을 위한 진드기 예방 제품을 비롯해 세균성 피부염을 완화해 주는 샴푸, 건강 회복에 도움을 주는 보양식까지 반려견의 건강을 책임질 제품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SFTS는 반려견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감염된 반려견으로부터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 진드기 예방을 위해 외부구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좋지만 목걸이를 착용시켜 최대 8개월 동안 진드기 예방 효과를 내는 제품도 있다. 미국 동물의약품 전문기업 엘랑코에서 판매하는 세레스토는 외부기생충으로부터 반려견을 보호해주는 목걸이형 진드기 예방 제품이다. 유효성분이 피부지질층으로 분포돼 진드기를 통해 반려동물이 걸릴 수 있는 매개성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준다.

피부가 민감한 반려견들은 반드시 전용 샴푸를 사용해야 한다. 애경산업의 프리미엄 펫 케어 브랜드 휘슬(WHISTLE)에서 선보인 '휘슬 허브4 약용샴푸'는 캐모마일, 세이지 등 에코서트 오가닉 인증을 받은 식물성 허브 추출물 4종을 함유해 피부 진정은 물론 건조한 피부로 인한 비듬 및 가려움 케어에 도움을 준다.

굽네몰의 반려견 자연영양식 브랜드 '듀먼(D'human)'은 최근 '영양 보양식 삼계탕·북어탕 2종'을 출시했다. 강아지가 좋아하는 닭고기 육수로 자연스러운 수분 섭취가 가능하며 저칼로리 고단백으로 수술을 마쳤거나 영양 보충이 필요한 반려견도 부담없이 섭취할 수 있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